

중 앙 회

오리업 장기불황 대책논의
사육량 감축 결의

본회는 최근 오리가격 하락과 관련해 제2차 이사회를 열어 일차적으로 사육량을 현재보다 20% 감축하는 방안과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6월2일 대전 유성오리마을에서 개최된 이날 이사회는 현재 오리업계의 출하일령지연 가격하락 현상은 오리업 장기호황에 따른 생산과잉에서 비롯된 문제로 오리고기 소비가 현재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새끼 생산량이 대폭줄어들지 못하면 해결이 어렵고 종오리 사육수수를 감안할 때 이같은 불황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현재의 불황타개책으로 가공유통업자가 구매비축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장기불황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실천이 지난하고 새끼생산량 감축과 소비촉진이 병행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같은 실천방안으로 첫째 부화분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화장들이 자율적인 새끼감축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사육농가는 부화장과의 협의하에 농장여건에 따라 입식량을 20% 감축을 원칙으로 조정하며 셋째,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자조금을 마련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각지회별 이사진을 원안대로 의견없이 통과시켰으며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대책으로는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국산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새끼오리 입식자재
전문지에 요청

본회는 최근 오리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농가에서 오리사육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요내용으로 보도해줄 것을 축산전문지에 협조 요청했다.

협조요청에서 본회는 최근 오리가격 동향이 지난 96년 97년도 불황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오리고기 소비가 현격하게 좋아지지 못하면 가격하락에 의해 사육농가들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신규로 오리를 입식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오리입식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관련해 축산관련 전문지들은 사육량 증가에 따라 오리업계 불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는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광주전남도지회

새끼오리 육용오리 가격 조정
운영이사회 열어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이덕행)는 지난5월 25일 운영이사회를 열어 새끼오리 가격을 3백원인하해 7백원으로, 육용오리 가격은 8백원을 인하해 4천2백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육농가 위탁수수료는 종전가격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회사무실에서 개최된 이날 운영이사회는 농번기를 맞이해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크게 지연되고 있고 육용오리 가격역시 지회가격보다 크게 하락한 가운데 거래되고 있으므로 재조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육분과측에서는 육용오리 가격을 현재보다 8백원인하하여 4천2백원선, 새끼오리가격은 3백원을 인하해 7백원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화분과측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모든업계에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새끼가격은 8백원선, 육용오리 가격은 4천5백원선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통분과측은 사육분과측의견과 부화분과측의견에 동감하면서도 양분되는 의견이 제신된 것으로 알려졌다.

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가 지속된 가운데 육용오리 가격은 사육분과측에서 제시된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 졌

나 새끼가격 조정에 있어서는 사육과 부화 유통측의 의견이 서로달라 합의 되지 못하다 밤 10시를 넘어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화장측의 내키지 않는 합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가격조절위 그대로 존속
회원상호 협조체제 방안 마련키로

14일 6월 월례회의를 열어 불황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지회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지회에서 운영중인 가격조절위원회는 현지회장 임기중 그대로 운영키로하는 한편 회원상호간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월례회의는 지난달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 육용오리 새끼오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쟁점이 되었는데 부화장측 한 참석자는 운영이사회에서 가격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각 분과별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분과별로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을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협회는 큰 틀에서 대내외적인 사항을 해결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반해 사육농가측 한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분과별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이사회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면 사육농가는 지회에 참여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는 현재 협회에 참여하지 않는 계열주체, 부화장들이 많아 협회

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현재 지회구성원을 소수 정예화하여 협조되는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이날 월례회의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다음 운영이사회는 월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중점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부북부지회

육용오리 새끼오리
공동구매 공동판매 추진

중부북부지회(지회장 최영기)는 6월8일 월례회의를 열어 최근 오리가격 하락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육용오리 출하물량이 증가되고 소비가 주춤하면서 타지역의 육용오리가 싼가격에 들어와 가격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이날 월례회의는 주로 매년 반복되는 이같은 현상을 사전에 막기위해서는 지회를 중심으로 육용오리 새끼오리의 공동구매 공동판매방식을 조기에 정착해야만 모두가 생존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위해서는 사육,유통업자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지회를 중심으로한 협조 및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구체적인

방안은 집행부가 출선해서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충남지회

오리고기 소비촉진위협
포스타 제작 추진키로

충남지회(지회장 이영희)는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지회 자체적으로 소비홍보용 포스타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회원 농가에서 출하치 못하고 있는 오리를 수매하여 비축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으나 사육회원들의 참여가 부진하여 거론되지 못하였다.

지난 22일 천안 이서방 가든에서 개최된 이날 정례 월례회의에서 참여회원들은 현재의 상황이 육용오리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로 오리고기 소비를 현재보다 늘리는 방안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지회회원의 어려움을 해소키위해 지회 자체적으로 소비촉진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충남지회는 오리고기 홍보용 포스타를 제작하여 회원농가에 배포하여 회원들의 오리가 빨리 출하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지회회원농가에 밀려있는 약 5천수내외의 오리를 수매비축하는 방안은 사육농가의 참여저조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논의되지 못했다.